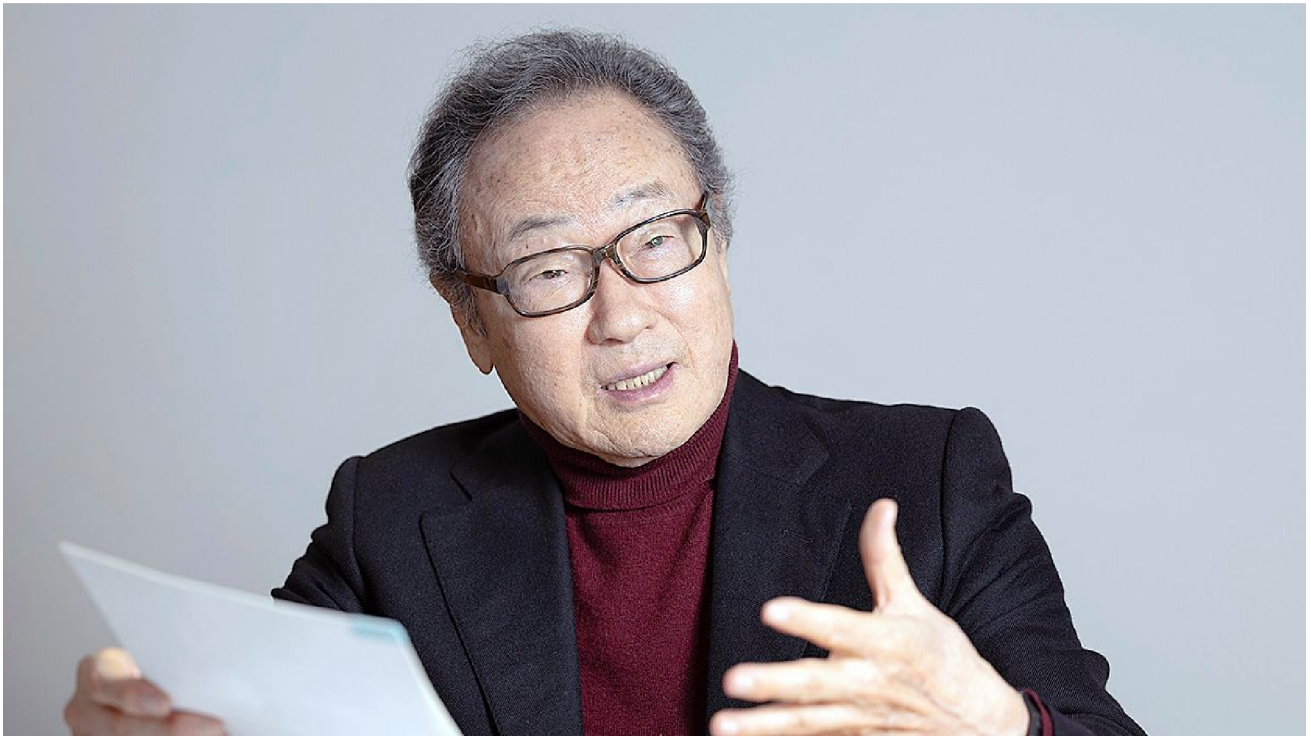


“경제학자로 국정 최정상 경험” 은퇴하지 않는 사공일의 교훈

중앙일보 수정 2026-01-13 09:32:51

“198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경제·국정 운영의 핵심에서 주요 대내외 정책 업무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도 ‘은퇴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서 연구·자문과 함께 국제 교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정 최정상에서 직접 주도하고 경험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숨겨진 일들과 시사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교훈에 초점을 맞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월 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연재를 앞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민규 기자

사공일(司空晷·86) 박사는 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재무부 장관(1987~88), 그리고 최장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1983~87)으로 일했다. 정부에 들어가기 전 미국 뉴욕대(NYU)와

영국 셰필드대에서 경제학 교수 생활(1969~73)을 했다. 73년 귀국해 정부 경제정책의 최고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0여 년간(1973~83) 연구·자문을 담당했다.

1988년 재무부 장관직을 물러난 직후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고문(1989~93)으로 활동하며, 이곳에 자리한 국제경제연구원(현 PIIE)에서 영문으로 『Korea in The World Economy』 (이후 국문판 『세계 속의 한국경제』, 일문판 『韓国經濟新時代の構図』)를 출간했다.

이후 귀국해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하며 세계 경제와 세계 속의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왕성한 교류를 했다. 그러던 중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에 복귀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무역협회장으로 일했다.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공일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와 지면에 매주 연재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88 올림픽이 열린 잠실종합운동장을 배경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연재와 관련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민규 기자

Q. 198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나 국정 핵심에서 대통령을 보좌한 드문 케이스다.

A. “그렇다. 나는 20년의 간격을 두고 대내외 경제 여건과 우선순위가 다른 시기에 국정의 중심에서 일해본 흔치 않은 사례임이 틀림없다.”

Q. 20년의 공백 이후 다시 국정에 복귀해 어려움은 없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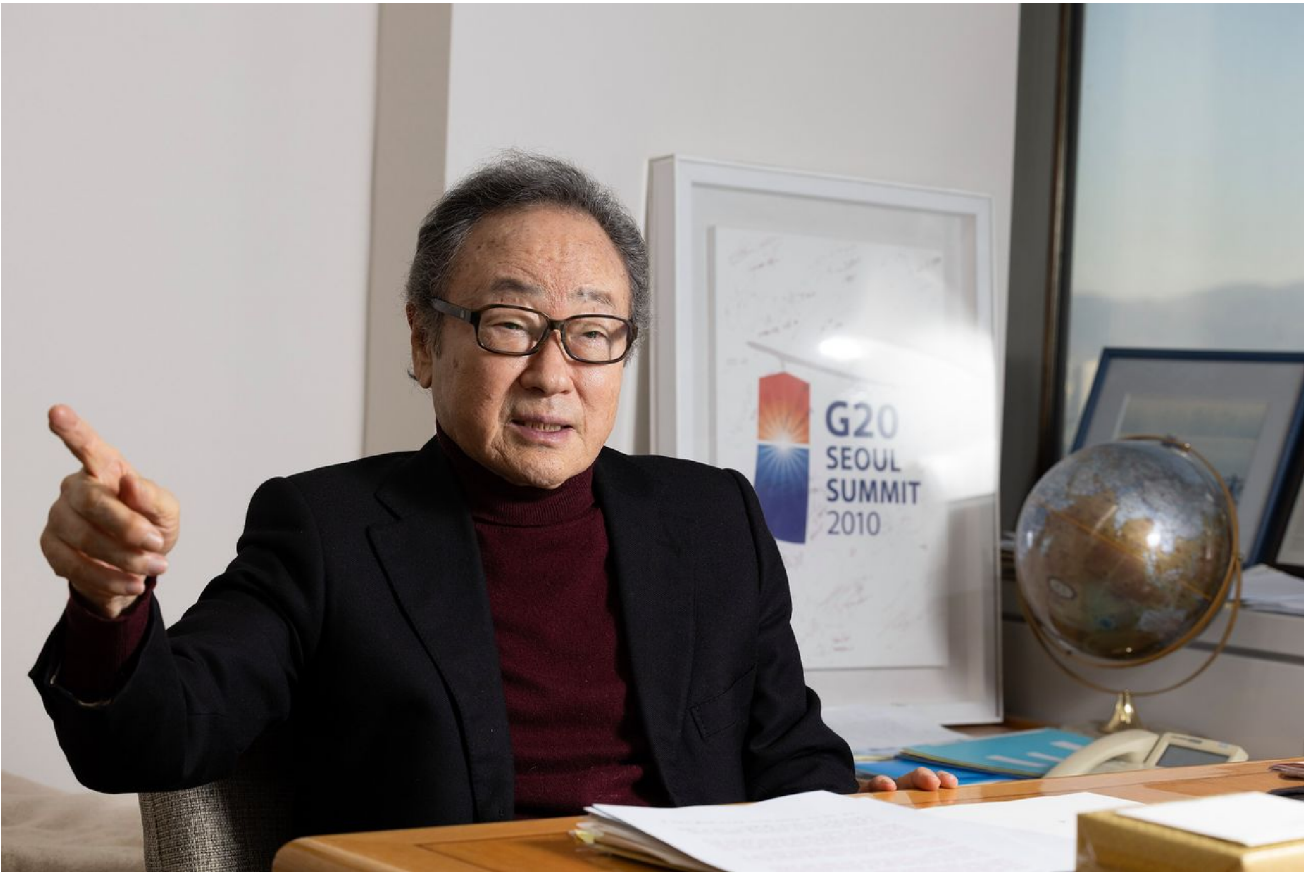
A. “나에겐 공백 기간이 없었다. 다행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부에서 나온 이후에도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 정책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계속했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 IMF 등 국제기구의 최고위 인사, 미국 등 주요국의 각계 전문가들과 수시로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해왔다. 따라서 나에게 그 20년은 공백 기간이라기보다 부족한 내공을 다지는 준비 기간이었다.”

Q. 3년8개월간 최장수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비결은.

A. “내 비결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의 결과로 봐야 한다.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전두환 대통령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재무부 장관은 개각으로 여러 차례 바꿨어도 경제수석은 계속 남아 있도록 했다. 다만 나는 매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처리하려 노력했고, 다행히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던 것 같다.”

Q. 경제수석에 이어 수년 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대통령 비서진의 역할에 대해 후진에게 조언한다면.

A.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역할은 막중하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자문(advisory)과 대통령 비서로서 행정(secretarial),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비서는 어디까지나 군의 ‘작전 참모’ 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되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대신 공(功)은 야전군사령관 격인 각 부처 장관에게 돌려야 한다. 수석 때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비서는 ‘얼굴도, 목소리도 없어야 (face-less, voice-less) 한다’는 말로 대부분 사양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실상과 정책, 그리고 국정 운영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했다. 그래서 외신 기고나 인터뷰에는 응했고, 이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연재와 관련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민규 기자

Q. 수석 이후 재무부 장관도 두 정부에서 연이어 지냈는데.

A.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KDI 수석연구원 자격으로 직접 전두환 대통령에게 수차례 보고한 적이 있었다. 1983년 아웅산 참사 직후 귀국한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불러 경제수석직을 맡으라 했다. 그리고 근 4년간 경제수석에 재임하다 1987년에 제5공화국의 마지막 재무부 장관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제6공화국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남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유지를 위해 전 대통령과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 간의 합의가 있었다. 이를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통보 받았다.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최광수 외무부 장관도 유임될 것이라고 귀뜸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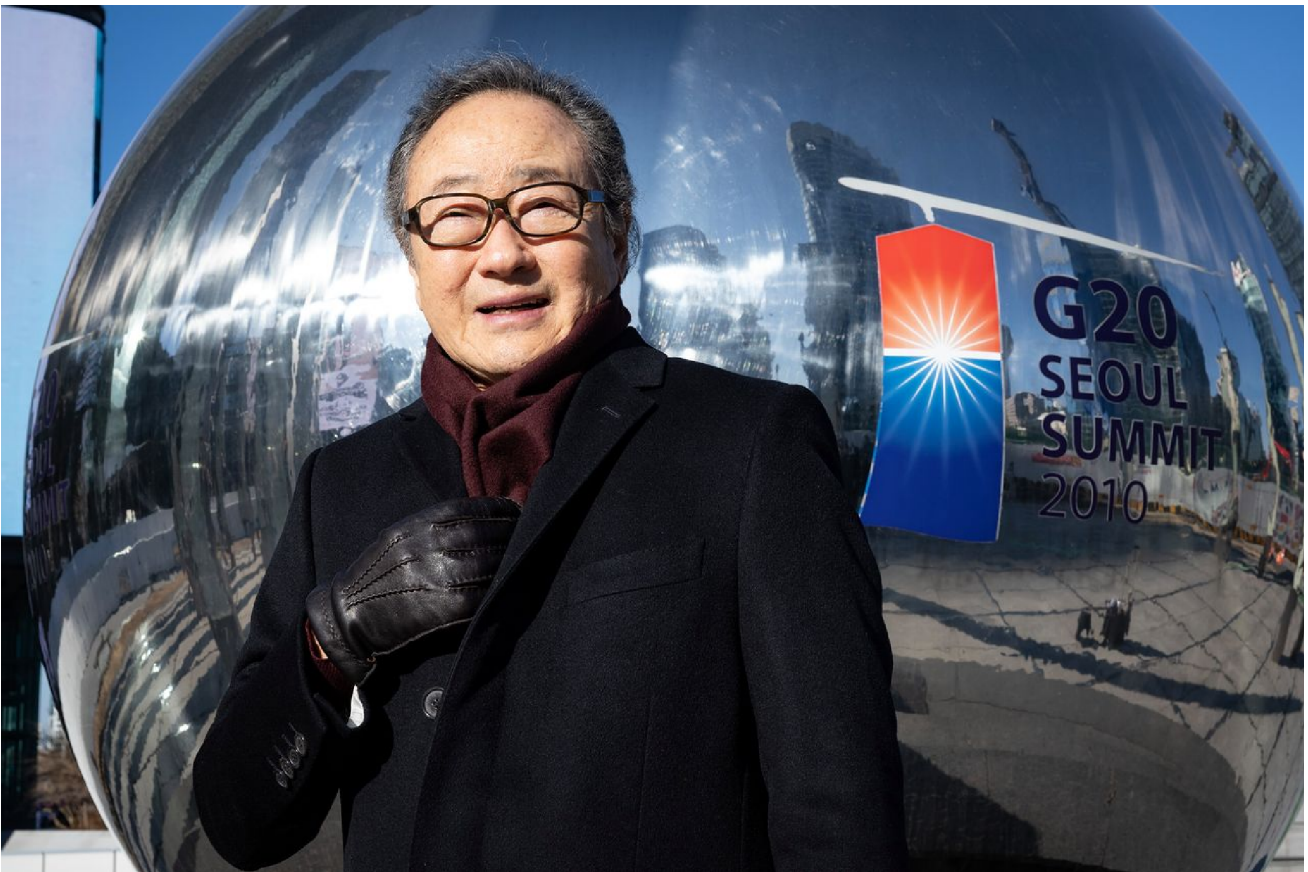
Q. 2000년대에 들어와 이명박 정부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달라.

A. “이명박 대통령과는 경제수석 재임 시 다른 주요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이후 10여 년간 특별한 사적인 접촉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2002년 초 서울시장 출마 전 대규모로 열린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출판 기념회에 나를 초청해 축사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 이후 뜸하다가 2007년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나서기 전 수차례 보좌관 등을 보내 나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 이후 이 후보는 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자문을 원했다. 나는 친기업 정책이 절실할 때라 관련 정강정책을 내건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선거 캠프 밖에서 돕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는 날 저녁 전화로 인수위원회와 함께 출범하는 국가경쟁력강화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이 위원회는 추후 기업 친화적, 소위 ‘MB노믹스’의 핵심인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상설될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그렇게 됐다.”

Q. 정부의 핵심에서 많은 중요한 일을 했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가.

A. “먼저 1987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IBRD) 연차 총회가 기억난다. 당시 모인 150여 개국 재무장관 중 유일하게 큰소리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재무부 장관으로서 연설했다. 그리고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일할 때 보람이 많았다. 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장들과 주요 7개국(G7) 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세계 경제 전체 차원의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특히 미국 백악관의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부 장관,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개별적으로 만났다. 한국이 생각하는 G20의 역할과 서울 G20 정상회의 어젠다에 관해 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던 과정이 기억에 생생하다.”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8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 설치된 정상회의 기념 조형물 앞에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연재와 관련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민규 기자

Q.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 재무장관’이라고 했는데.

A. “당시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제3세계의 외채 위기였다. 특히 남미 주요 채무국들은 외채 상환 불능으로 IMF의 긴축 강요를 거부하고, 외채 탕감을 외치는 상황이었다. 이 개도국의 위기는 선진채권국엔 발등의 불이었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 채권국 모두가 어려웠다. 이때 한국은 스스로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하기 힘든 재정 건전화와 경제 안정화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마리 토끼’(성장·물가·국제수지)를 잡는 호황을 맞았다. 그리고 외채 조기 상환을 서두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선진국 은행들과 세계은행마저 한국의 외채 조기 상환을 꺼렸다. 나는 이 총회에서 한국의 경험에 비춰 선·후진국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당당히 제안하는 연설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총회 참가자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기라성 같은 많은 선배 장관들은 이런 계기에 예외 없이 돈을 빌리러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어렵사리 만나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행복한 재무장관이었다고 한 것이다.”

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가.

A. “오늘날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른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세계 경제의 4분 1을 차지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잡을 수 없는 ‘미국 우선주의’ 시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안보 질서가 급속히 무너지고 불확실성과 혼돈의 와중에 있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소와 안보 측면의 고려가 각국 국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국제적 안목이 넓은 분야별 전문가와 두뇌집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G10 반열의 국가로 한국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중간 규모의 나라(middle-power)와 함께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G20 준비 과정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나의 경험과 과거 사례를 통해 미래를 향한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